

# 상권 활성화로 어려운 군산경제 극복

###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 시민들에게 고마움 전하고자 분기별로 자체 상품권 지급 이벤트 추진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가 지역화폐 발행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칭)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회장 이삼석)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는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찾아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분기별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운상가 번영회를 찾는 손님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로 응모권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자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다.

응모권 추첨을 통해 뽑힌 1등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고 2등과 3등에게도 각각 15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자체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삼석 상가번영회장은 "오랜 기간 참예기를 겪고 있던 동백로 일원의 상가들이 최근 들어 활기를 찾고 있다"며 "잊지 않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찾아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그동안 상가번영회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누군가 나서 주기를 바라기만 했던 것만큼 사실상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렇게 회원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식 단체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기부 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의회 지혜준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는 이삼석 회장님과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상가 활성화와 번영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자주 만나서 소통하며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지역통합방위 유공 '최우수' 선정

군산시가 지역통합 방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9일 '지역통합방위 유공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기관별 통합방위 태세 확립 추진 실적, 총무·화랑훈련 등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평가 결과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산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로 보고 있다.

임춘수 안전총괄과장은 "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특화 청년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 군산시, 참여기업 9곳 연계 '매칭데이' 개최

군산시가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9개 기관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1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9개 기관과 청년을 연계시키는 미니 취업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50여명의 청년은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선호하는 기관부스 방문 및 1:1 면접을 통해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의 '일자리컨설팅'도 함께 진행됐으며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력서 컨설팅'과 '증명사진 촬영부스'를 운영해 많은 청년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4억 9,400만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군산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형 사업에 7억 7,200만원, 총 12억 6,600만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는 창업생태계 조성형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

을 통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해 많은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스리랑카 환아에 '사랑의 인술'

### 원광대병원, 선천성 심장병 라진 무료 수술 전개 '귀감'

원광대학교병원이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19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의 라진(2) 군을 위한 무료 수술을 전개해 새 삶을 선물했다. 경제 활동을 위해 국내로 이주한 이주 노동자 부부의 아이로 지난 2016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라진 군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다.

고가의 비용으로 수술은 꿈도 못꾸던 라진 군의 부모 소식을 접한 원광대병원이 곧장 손을 내밀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시간이 넘는 수술을 견뎌내고 건강을 되찾은 라진 군은 원광대병원에서 가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훈을 실천하기 위해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원누리후원회 후원 등을 통해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권하 병원장은 "본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의 환우를 보니 감사하다"며 "병원이 나아갈 길과 지향하는 바를 몸소 실천 해 준 교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주민과 함께 소통 공감대화의 날 운영

### 내달 4일부터 매월 첫번째 목요일 27개 읍면동서

민선7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관내 27개 읍면동이 일제히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임준 시장 취임이후 시작했던 시장과의 대화시간인 특색을 대폭 확대해 일선의 읍면동장도 나서 주민과 공감하는 대화의 장을 펼친다.

그간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소통 신

구식책 추진과 시장과의 특색을 확대해 주민과 대화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읍면동장 공감대화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원과 주제에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현장답변 후 추후 해당부서의 상세한 답변을 주민에게 해 줄 계획이다.

김임준 시장은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을 통해 읍면동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농어촌민박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 21일부터 한달동안

군산시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운영 중에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관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민박 현장점검은 군산 시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실태 ▲건축물구조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가스설비 등으로 시는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

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직접 농어촌민박 시설을 순회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 배부한 자체점검표 게시 및 활용 방법을 민박시설 관리자 및 주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병래 소장은 "안전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민관이 함께 정보공유 등의 소통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어촌 민박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참여형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